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4월 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4. 1.(월)	담당부서	국내대책과
담당과장	오현경 과장(044-203-4140)	담당자	총괄기획과 강봉조 사무관(4119) 국내대책과 김민수 사무관(4142)

유명희 본부장, FTA 15주년 맞아 「신 FTA 추진 방향」 발표
- 「통상국내정책 포럼 : FTA 15년, 평가와 과제」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무역협회**는 4.1.(월) 오후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무역협회, 통상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통상국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통상국내정책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9. 4. 1(월) 14:00~17:20,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51F)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유관부처·기관 담당자 및 연구원 등 100여명

▷ **주 제** : "FTA 15년, 평가와 과제"

▷ **기조 발제** : 배찬권(대외경제연구원 실장), 오영석(산업연구원 본부장), 문한필(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 **패널 토의** : 성극제(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양희(대구대 교수), 안덕근(서울대 교수), 문성기(한국소비자원 국장), 송경은(원산지정보원 실장), 제현정(한국무역협회 단장), 김형주(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및 기조 발제자 3인

○ 1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지난 15년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 ① 'FTA 15년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KIEP), ② '우리나라 FTA의 산업부문 성과점검과 활용 극대화 방안'(KIET), ③ '농업부분 시장개방과 대응전략'(KREI)

○ 2부는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을 주제로 김양희 대구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문성기 소비자원 국장 등 11명이 참여하여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4년 오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 미, 중 등 주요경제권을 포함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 그 결과 **'18년 세계 7번째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이 중 73%를 차지**하며, **국민의 88%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제품선택 다양성 확대를 경험**했다고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소개했다.

□ 한편, 금일 포럼에서 유 본부장은 **'확장', '혁신', '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신 FTA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첫째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으로, **신남방,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에 기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인니·말련·필리핀 등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 인도와의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 둘째,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내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 셋째, **"포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 컨설팅 확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애로를 파악해 향후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체제의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유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한다며, 오늘 포럼이 **지난 15년간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8년차, 한중 자유무역협 4년차를 맞은 만큼, **그간 협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후생, 내수경제에 대한 영향 등 **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무역이익 분배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분석**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 취약부문에 미친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 본부장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 시점**에 자유뮤역협정 발효 15주년을 맞아 자유무역협정**의 신패러다임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 오늘 포럼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주도하는 통상정책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강봉조 사무관(☎ 044-203-41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통상국내정책 포럼 : FTA 15년, 평가와 과제」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9.4.1(월), 14:00~17:20 /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유관기관 담당자 및 연구원 등 100여명

□ 주요 일정

행사명	시 간		내 용	참석자
개 회	14:00~14:05	5'	· 개회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14:05~14:10	5'	· 축 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14:10~14:20	10'	· 기념촬영	주요 참석자
기조 발제	14:20~15:40	80'	<기조발제> • FTA 15년, 평가와 과제	
			- FTA 15년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 (20')	대외경제연구원 배찬권 실장
			- 우리나라 FTA의 산업부문 성과점검과 활용 극대화 방안 (20')	산업연구원 오영석 본부장
			- 농업부분 시장개방과 대응전략 (20')	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센터장
			• Q & A (20')	
	15:40~16:00	20'	휴 식	
패널 토의	16:00~17:20	80'	•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 - (**사회**) 성극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장 - (**패널**) 김양희 교수(대구대), 안덕근 교수(서울대), 문성기 국장(소비자원), 송경은 실장(원산지정보원), 조정희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현정 단장(무역협회),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산업부), 기조 발제자 3인	총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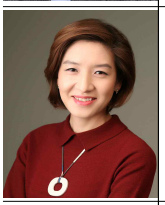
참고2 주요 참석자 약력

□ 기조 발제(3인)

순서	사진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요 약력
1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 인디애나 대학교 경제학 박사
2		오영석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장	·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3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 미국Oregon State Univ. 응용경제학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통상동북아연구센터장

□ 패널 토의(11인, 기조 발제자 3인 참여)

사진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요 약력
	성극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	· 노스웨스턴대학 경제학 박사 · 아셈듀오 장학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 · 現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경대학교 경제학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KIEP 선임연구위원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 서울대 국제경제학사, 미시간대 JD/경제학 박사 ·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現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성기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 충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 분쟁조정국장, 소비자안전국장 · 기획조정실장

사진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요 약력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 미국 Univ. of Rhode Island 환경자원경제학 박사 · FAO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부의장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수석전문관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East West Center, University of Hawaii 및 호주국립대학 방문학자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	· 서울대 국제대학원 통상 박사 ·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 인디애나 대학교 경제학 박사
	오영석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장	·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 미국Oregon State Univ. 응용경제학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통상동북아연구센터장

참고3 축사 [유명희 통상교섭부장]

Ⅰ 인사말씀

존경하는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의 FTA 15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15년전 초대 FTA정책과장으로 임하는 등
그 역사를 상당 부분 함께한 사람으로서
FTA의 과거와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자리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Ⅱ FTA 성과 평가

지난 2004년 오늘, 우리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를 발효시켰습니다.

당시 FTA 지각생이었던 우리는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미국, 중국, EU,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여,
전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습니다.

* 칠레 1위, 페루 2위, 한국 3위

WTO를 통한 추가자유화가 정체되어왔던 지난 15년간
FTA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핵심적 통상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FTA가 발효된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이 중 73%에 해당합니다.

비단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뿐만이 아닙니다.
FTA의 효과는 우리의 일상 생활도
보다 윤택하게 바꾸어놓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88%가 FTA로 제품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성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FTA 15년의 과정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통상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지지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I FTA 15년 평가 필요성 및 한계

그러나 기존 FTA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차례 더 큰 도약과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별 FTA 이행상황평가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
전체 FTA의 성과와 영향을 검토한 분석은
5년 전, FTA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것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당시 평가는
한미 FTA 발효 초기, 한중 FTA는 발효전이었던 만큼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미 FTA 8년차, 한중 FTA 4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FTA의 종합적 성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FTA가 우리 경제의 질적 고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절차법에 따른 평가는
GDP, 교역액, 투자실적과 같은
거시경제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FTA를 고도화,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거두어야 하는 만큼
그간 FTA가 소비자후생, 내수경제에 미친 영향 등
질적 성과를 정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FTA가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을 지원하고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무역의 이익은 어떻게 분배됐는지,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FTA를 활용해 왔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FTA 보완대책과 활용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외협상 과정에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가
지난 15년간의 FTA 정책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Ⅳ 新 FTA 추진 방향

우리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보호무역주의의 풍랑과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한편,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① 확장, ② 혁신, ③ 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FTA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입니다.

① 먼저, 우리 기업들이 주력시장 확대,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FTA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G2에 이은 새로운 시장들을 적극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인니·말련·필리핀 등과 양자 FTA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인도와의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신남방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 FTA로
우리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② 둘째, FTA를 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FT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정책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EU FTA를 계기로 한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단계적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고,
글로벌 통상의 디지털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에서도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이 제약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③ 셋째, 취약계층·피해산업을 배려하는 **"포용의 FTA"** 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등 FTA 피해 산업의 혁신과 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돕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를 소극적으로 청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FTA 컨설팅 등을 확대해나가는 등
적극적인 FTA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조업·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넘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FTA 활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향후 FTA 개선협상과 FTA 이행체제 강화를 통해
적극 반영하고 환류하겠습니다.

또한 FTA 효과가 소비자 개개인에게 골고루 배분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Ⅴ 맺음말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America First, 브렉시트 등으로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불확실성이 고조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과거 FTA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평가하고
국민과 수출현장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의 新패러다임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오늘 포럼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달성을 주도하는
통상정책 실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4 주요 발표내용 및 토론 요지

□ 기조 발제

가. FTA 15년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

배찬권 (대외경제연구원 실장)

□ 통상절차법의 철학, 이행상황평가의 방법론적 한계, FTA 국민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FTA 성과분석 연구**의 **개선 방향** 제시

○ 우리나라의 **그간 FTA 정책 개괄** 및 경제적 변화, 무역 중심으로 **FTA 효과** 소개

○ 통상조약 이행상황평가의 법적 근거인 **통상절차법** 및 한·미 FTA 이행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방법론** 설명

□ **기발효 전체**(15건) **FTA에 대한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서비스 부분의 효과** 등 종합적인 분석 실시 계획

○ 성과측정에 치중하기 보다는 **객관적·다원적 관점**에서 분석(필요시, 노동의 질적 변화 등 추가 분석 실시 등)

나. 우리나라 FTA의 산업부문 성과점검과 활용 극대화 방안

오영석 (산업연구원 본부장)

□ FTA 체결 이후 **국제무역환경 변화** 및 주요 FTA 교역 **상대국별 FTA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 한국의 주요 FTA 교역 상대국별 **산업**의 **경쟁력**과 **특화구조 변화** 및 **특혜·비특혜 품목**의 **무역성과**와 **경쟁력 변화 분석**

□ 관세 미양허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산업별로 실제 성과와 비교하여 **FTA를 통한 관세인하 재평가** 연구 계획

○ 주요 기체결 FTA에 대하여 **한국·상대국 수입자료** 및 **관세양허 DB**를 **구축**하고, **연도별 관세 절감액** 추정

○ **FTA 활용 관세절감품목**의 **가격변화**를 추적하여, **관세절감의 실질적 귀속대상** 추정

다. 농업부분 시장개방과 대응전략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 **농업의 변화과정**과 **농업분야 투융자 사업성과 분석** 및 **농업 통상전략의 방향** 제시

○ 농업관련 지표*를 통한 **농업·농촌 변화 분석**

* 주요 지표 : 농업부문 성장률과 농가소득, 경지면적과 농업 생산성, 농업 및 농가 인구

○ 우리나라 농**업분야 FTA 체결현황**과 양허내용, **농산물 교역 동향 분석**

○ 관련 예산을 FTA 국내보완대책 중심으로 정리하여 **투융자 사업성과 분석**

□ 패널 토의 주요 발언

순번	발표자	요지
1	김양희 교수 (대구대학교)	- 'FTA를 통한 국내제도 선진화'가 필요함에도 짧은 FTA 역사로 인해 분석방법론 한계, - 방대한 연구대상 등 복합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그간 여타 정량적 분석에 비해 연구가 저조 - 관련 연구 활성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선진화 필요
2	안덕근 교수 (서울대학교)	- 현재까지 FTA 정책은 대체로 성공적 - 그러나 현재 미국, 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들이 주도하여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구축하는 FTA 블록화 현상 발생 - 앞으로의 FTA 정책에 개선, 재편 전략을 모색해야 함
3	문성기 국장 (한국소비자원)	- FTA 소비자후생 효과분석 및 지수 측정 - FTA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을 기반으로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 변화를 소비자혜택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필요
4	송경은 실장 (원산지정보원)	- '18년 FTA 수출활용률 기업규모별로 구분 시 상당한 차이 -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전문성, 정보, 인력 부족 애로 호소 -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해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컨설팅 등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필요
5	조정희 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미 FTA 체결 계기로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 중. - 한편, FTA 발효 후 국내생산이 적거나 없는 품목(새우, 연어, 낙지, 주꾸미, 바다가재, 참다랑어 등)의 소비 대중화 및 수입 증가세로 국내산 수산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외국산 수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6	제현정 단장 (한국무역협회)	- 무역업계는 지난 15년간 FTA를 통해 많은 혜택을 향유했으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일부 무력한 정서가 확산 중 - 그러나 WTO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FTA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나가야 함 -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FTA 성과분석을 통해 신규 FTA뿐 아니라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7	김형주 국장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 '무역의 이익(gains of trade)'과 '포용적 통상정책'의 과제 - FTA 평가: 사례(case) 접근과 정량적 분석의 조화 - 대내·외 정책 관점에서 FTA 성과 평가 결과의 활용과 의미 - 경제주체 간 이해 상충 문제와 갈등 비용